

〈특별기고〉 權 仁浩(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3)



지난해 8월 말에 상기 제목의 ‘특별기고②’를 기고한 이후 꼭 1년간 학교와 학회의 일과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원고를 연재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고 미안한 심정을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목을 연재를 다시 시작하며 간단히 요약해 말하자면, 우리의 반만년 이어온 훌륭한 전통사상을 오늘에 되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民)이 나라(國)나 임금(君)의 근본인 유교의 민본 정치철학과 경제제민(經世濟民), 곧 ‘천하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것은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백성은 밥(食)을 하늘(天)로 안다.’는 것인데 [서경書經]의 이야기다.

좀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다면, 동서고금 막론하고 백성(國民, 人民, 民衆, 臣民)들이 가렵주구나 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굶주리거나 역병(疫病: 전염병,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과 참상을 겪고 육친(六親: 부모형제처자)과 인척(隣戚: 이웃과 겨례)가 계속 죽어나가게 되면 모든 나라가 제(喪)국이든 공화국이든, 전제(獨제) 국가든 민주국가든 나라가 망하고 겨례와 민족이 노예가 되거나 흩어졌고 먼 훗날 자신의 뿌리마저도 잊거나 잃고 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문명과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일수록 부정부패와 끝없는 욕망(권력, 재물, 사치)에로의 질주와 윤리·도덕적 타락에 의한 내분(內紛)에 의하여 망하였다. 유학,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적인 종교적 경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교양·인문학 서적과 위인전이나 선현선철(先賢先哲)들의 문집과 자서전 등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無慾과 寡慾) 형제와 이웃들에게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덕성을 갖추라고 역설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부(淸富)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하며 부자들을 질시하는 것을 탓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일별해 볼 때,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 모두가 한번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웅변 같은 질책과 반성 그리고 부끄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풍찬노숙하며 국내외 산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의·열사들과 그 후손들 대부분의 삶이 피폐된 모습과 대조적으로, 적

(군)의 앞잡이나 나라를 판 친일매국 반민족행위자 군상들과의 그들 후예의 풍요롭고 당당한 모습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기(氣)가 잘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선열과 그 후손에 대한 보존정책과 학교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후기 자본주의의 적폐와 신자유주의 쓰나미(津波) 그리고 미국식 세계화로 표상되고 있었던 20세기 후반 모습은 이번 전 세계적인 역병 ‘코로나19 (COVID19)’로 인한 WHO의 ‘팬데믹(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선언’과 함께 각국이 대공황의 모습과 같은 경제 상태를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주고 있다.

19세기 대영제국에서 생물학적 진화론(C. 다윈)에서 사회진화론(H. 스펜서, T. 헉슬리 등)에 바탕을 한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떠들면서 이른바 제국주의 구가의 식민지 건설과 ‘동물의 왕국’을 정당화하며 미화포장까지 하고 있어 왔다.

한편 독일출신 K.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자본론〉과 〈공산당선언〉 원고를 그의 영국 친구 F. 엥겔스와 함께 썼고 편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7세기 프랑스의 R. 데카르트 이후 합리주의란 것도 끝내 근대 이후 서양 인식론·존재론 변화로 종교개혁과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懷疑)와 개인 스스로의 존재확신에서 부르주아의 자유와 사적 이익의 ‘계산’을 의미할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예수회 중국 선교사로 한문으로 [천주실의]를 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1595년 북경에서 [사서四書]를, 1610년 항주에서 트리 고틀(Tri Gault)이 [오경五經]을 라틴어로 번역 완료하여 예수회 본부로 보내지게 되었다.

이로써 ‘하느님의 인간 창조’([성경]의 〈창세기〉는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모방) - 20세기 성경학자 주장]와 ‘왕권신수설’이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유교의 민본정치사상)과 혁명의 정당성([맹자])이 프랑스·독일 등의 계몽주의 진정한 서양의 근대화가 시민혁명이 이룩되기 시작하였다.(주검지, 전홍석 옮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열풍], 창계, 2010)

서학과 천주교가 들어온 지 2백년이 넘었고 한국의 유교·불교 등과 교류·문화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 신교인 기독교가 미국의 신미양요(1871년 4월) 이후 미국의 무기를 전수받은 운양호 사건(1875년 8월) 이후 조일수교통상조규 체결(1876년 2월) 이후, 1882년 4월 미국과 수호통상조약 체결이후 곧 이어 영국과 독일과도 조약을 체결 하였고 기독교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번 대한민국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사이에, 광화문과 세종·을지로 등지에서 태극기·성조기·일장기 등을 흔들며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경향 각지의 대형교회 (일부)신도와 미통당 (일부)당원들 수만 명들의 불법 반정부 시위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종교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능우회, 코로나 때문에 올 들어 처음 회의 개최



2020년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격월회의가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중진회관 3층 대중회 안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 8월 처음으로 격월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능우회원, 능곡회 회장 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곡회에서 넘어온 신입회원 5명이 능우회에 입회함으로써 회의가 더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기형 능곡회장은 능곡회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능우회를 대표해서 권희태 능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능우회원 한 사람당 양말 두 켤레씩을 선

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묘소 망배에 이어 권희태 능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달 만에 한 번씩 모이던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8개월 만에 처음 열려서 회원들을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다”며 “오늘 입회하는 신입회원 5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원(법무사), 권기중(한의사), 권순학(부동산 대표) 등 3명이 차례로 입회 소감을 피력했으며 2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입회한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과 게스트로 초청된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연수원장으로 각각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권오갑 사무국장은 경



권기형 능곡회장(왼쪽) 권희태 능우회장(오른쪽)

과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밝혔다. 코로나 때문에 7개월 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자 회원 회비는 금년도 분에 한하여 50%를 감액하고 신입회원 입회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받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중진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2개들이 치약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현재 능우회원은 23명이며 이번 신입회원 5명이 입회함으로써 회원 수가 28명으로 늘어났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 아홉 번째 모임 가져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이 아홉 번째 모임을 가졌다. 장맛철을 맞아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8월 11일 오후 1시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는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동로에 위치하고 있는 ‘셀프집밥사람’식당에서 대중회 고문을 비롯하여 파종회장, 게스트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권계동 대중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중진회장, 권인택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익 파종회 사무부총장, 권영진 부회장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종회장, 권순협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등이다. 게스트로 초청받은 사람은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기탁, 권남희 안동시의회 두 의원, 권영수 안동중진회 감사,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연수원장,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이다.

모임을 주선한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도 고르지 못한테 경북도청 부근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며 “오늘은 소찬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청이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어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은 “외곽지에서 모임을 가지니 뜻깊다”며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된장찌개로 점심식사를 모두 마친후 이 자리에서 권순협 전 별장공파종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포도 3송이가 들어있는 포도 1박스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다음 열 번째 모임은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이 오는 9월 15일 저녁 때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09차)

- ◆ 일 시 : 2020년 9월 20일(일) 오전 10시(시간엄수)
- ◆ 산 행 지 : 불암산둘레길
- ◆ 집 결 지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등(1회용 사용금지)

산악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사무국장 권순휘 : 010-3797-1874

2020년 9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오 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후 7시
-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지하철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우가촌
-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0년 9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